



축제 시작과 끝을 알리는 축포

제11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성대히 펼쳐진 가운데, 개막(사진 왼쪽)과 폐막(오른쪽)을 알리는 축포가 하늘 위로 쏟아 올려졌다.

한우로 전하는 사랑... 사과로 건네는 향기...

# 볼거리 · 먹거리 · 즐길거리 '삼박자' ... 행복지수 'UP'

방문객수 30만3132명 매출 31억2052만원 실적 올려

제11회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342일원, 34만4500㎡규모인 주요시설로 논개사당, 의암호, 데크, 잔디광장, 정자시설 등에서 축제가 펼쳐졌다. 축제 때 3일간 방문객수는 30만3,132명이었고, 농·특산물 판매 및 체험행사 운영, 매출은 31억2052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축제 운영기간은 22일부터 24일까지로 첫째날은 4만3527명, 둘째날은 13만9451명이 마지막 날은 12만154명이 다녀갔다. 또한 농특산물 매출은 첫째날, 6억1664만원, 둘째날, 14억1490만원, 마지막날은 10억8898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인근지역 4군데(김제 지평선, 완주 와일드푸드, 전주 세계문화, 금산 엑스포)가 동시다발적으로 축제가 열렸음에도 장수군이 지난해에 비해 인구수(13%감소)나 매출(17%감소)은 줄었지만 좋은 성과를 냈다는 호평이다. 이에 본보는 장수군의 축제를 다시 들여다봤다.



### ◇수확의 기쁨과 체험의 즐거움 만끽

가을이 풍성함으로 높고 파란색이 깊어질 즈음, 전북 장수군에서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2017년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바로 그것으로, 청정고원의 신선한 양분을 먹고 자란 홍로 사과와 오미자, 한우를 테마로 수확의 기쁨과 다양한 농촌생활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는 호평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던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Red Color 농특산물을 테마로 다양한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농촌문화관광축제이다.

올해 축제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장수 의암공원 일원에서 펼쳐졌다. 사흘간의 축제 기간 동안에는 사과수확체험, 장수한우한마당, 적과의 동침, 동물농장체험, 곤포나르기 등 7개 분야 6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소중한 가을 추억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축제에는 추석을 앞두고 사과·오미자 등 구매하고자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농가들이 쾌재를 불렀다.

### ◇결실의 계절 'Red 페스티벌'

'Red 페스티벌'이 사람들이 축제를 찾는 가장 큰 이유다. 축제를 더 뜻깊게 즐기는 방법은 직접 참여해 주인공이 되어본 것이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사과밭에 들어가 주렁주렁 매달린 빨~간 사과를 수확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무거운 곤포(한우 먹이)나르기 시합을 한 뒤에 먹는 장수 한우 맛. 여기에 승마체험까지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여가를 즐긴 셈이다.

모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었다는 것. 올 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로 인해 누구나 떨리고 행복한 축제의 장을 경험했다는 것!

또한 메인무대로 개막축하공연 출연진에는 구구단, 데이브레이크, 박재정, 리얼걸프로젝트와 헤일로가 무대에 섰으며, 레드라 페스티벌에는 단독콘서트에 장수 출신 뮤지션인 하현우가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록밴드 국카스텐이 무대를 장식했고, 폐막공연에는 트로트 콘서트에 조항조와 민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 ◇체험프로그램도 다채

#### ▲장수사과 수확체험

수확의 기쁨에 체험의 재미를 더한 프로그램으로 청정고원에서 정성스레 키운 맛있는 장수 사과를 직접 수확해 20kg 한도 내에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참가자를 인터넷에서 접수받아 진행했다.

한 사람당 사과나무 2주까지 예약 가능했으며 체험료는 1주당 10만 원이었다.

#### ▲전국 한우곤포나르기 대회

곤포나르기 대회는 오직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으로 남녀 경기



곤포나르기 등 7개분야 64개 프로그램으로 '가을 추억 만들기' 선사  
추석 명절 앞두고 사과·오미자 등 구매하고자 많은 인파 몰려들어  
Red 페스티벌,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 찾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아

가 펼쳐졌다. 지역민과 관광객 등 6명이 한 팀을 이뤄 시합을 펼쳤는데, 30팀 이상을 모집, 시합을 치렀다.

대회 진행방법은 6명이 곤포(180kg)를 들고 왕복 50m를 거리를 빨리 달려 들어오는 팀이 승리. 참가비는 없고, 1등(1팀)150만원, 2등(1팀) 80만원, 3등(1팀) 50원, 협동상(1팀) 20만원, 변의상 2개 부문(2팀) 각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은 축제의 재미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이 함께 의암공원 논개사당 앞 잔디광장(체험마당)에 설치된 텐트(4인용)에서 1박 2일간 캠핑을 즐기며 가족애를 쌓을 수 있다는 축제 때마다 호평이 이어져 올해도 프로그램을 진행,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어김없이 받았다.

적과의 동침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다. 숙박이 가능한 사람들은 텐트를 제공하고 저녁에는 미니콘서트 및 가족이벤트(밤 10~11시) 등을 개최해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했다.

참가비 2만 원을 내면 1만 원짜리 상품권을 거슬러 주는 이벤트를 진행, 상품권은 장수군 어디에서나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도록 진행했다.

#### ▲토마토 속 '황금민지'를 찾아라!

황금민지를 찾아라는 토마토 풀장에서 '토마토를 던지고, 밟고, 으개는 과정 속에서 황금민지와 토마토가 인체된 집을 찾는 게임'이었다.



행사는 양일간 하루 2차례씩(1차오후 1시, 2차 노후 4시) 총 4회 진행됐으며, 회당 순금반지 1돈짜리 3개, 순금반지 반돈 짜리 5개, 토마토 10박스를 경품으로 제공됐다.

#### ▲장수한우리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즐기면서 장수군 문화관광지 투어를 하는 것으로 행사 양일간 진행됐다.



투어버스 운행코스는 축제 행사장을 출발 해 논개생가, 주촌마을→도깨비체험관→장수목장(또는 정인승기념관)을 돌아오는 여정으로 하루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출발) 운영됐다.

#### ▲깃질놀이

백중날 할아버지가 할머니기와 마을별 대표 농기를 들고 깃질, 지놀이, 깃싸움을 하는 놀이를 통해 화합과 풍년을 기원했던 전통놀이이다. 일제 때 없어졌던 것을 장수 문화원이 주도해 발굴, 복원한 것으로 메인무대 앞마당에서 선보였다.

#### ▲물고기 잡기 체험

축제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회씩 진행됐다. 체험료 1,000원을 내고 참여할 수 있으며, 풀장에서 메기와 미꾸라지를 잡아 가져갈 수 있었다. /장수=고판호 기자